

Healing X.

우리의 넘어짐은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1. 노아의 시대

[마태복음 24:37-39]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39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성경의 포인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시점(타이밍, 때)에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시점으로 성경은 시작된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시점, 그 절정은 바벨탑의 심판을 지나 노아시대의 타락까지 간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모든 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차오른다. 결국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을 받기 전까지 악은 고칠 수 없는 전염병처럼 땅에 창궐한다. 이 악의 출처는 물론 인간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악은 인간의 마음에 숨겨졌다 나타난 실체이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노아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에 노아의 시대를 보며 성도들이 힌트를 얻으라는 것이다. 악이 창궐한 그 때에 노아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였다. 노아를 보며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다.

2. 의인 노아

[창세기 6:9]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노아를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 증거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말한다. 이런 노아의 삶이 악이 창궐하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다.

(1)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 마음이 경작된 사람 (그리스도인)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의'란 '불의'의 반대개념이다. '흠'이 없는 사람이란 온전한 사람을 의미한다. 무슨 말인가? 노아의 삶이 불의한 자들의 삶과 구별되었다는 것이다. 노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노아의 삶에 의와 온전함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경작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의란? 삶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고 되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제자들의 삶을 보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말한다.

[사도행전 11:26]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일 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결국, 마지막 때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삶'이다.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아는가?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면 아무소용이 없다.

(2) 깨어진 연약함이 주는 선물 '겸손'

악한 시대이지만 부단히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했다. 노아의 삶이 보이지 않는가? 그렇다면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 그러나 노아 또한 죄인이다. 즉, 죄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위해 그 마음안에 죄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다는 것이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럴수 없다. 흠이없고 온전하다는 것은 노아자체가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는 것인가? 아니다. 흠이 없이 온전하시고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 뿐이시다. 노아의 삶이 의롭고 흠이 없었다는 것은, 자신은 연약한 죄인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삶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노아는 많이 깨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앞에 깨어진 인간의 연약함이 주는 선물은 '겸손'이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 겸손은 존재적인 단어이다.

'겸손'은 온전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상태의 자아를 말한다. 부족한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상태가 겸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안에 온전히 인식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신의 연약함을 본다는 것은 '의기소침', '자신감'이 없는 상태와 다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고있는 사람이다. '겸손'은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존재'앞에 자기 자신을 항상 비추는 사람을 말한다. 힘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는 '비굴함'과 다르다.

(3) 아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은 축복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특별히 다른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성경의 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하셨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말한다. 사랑의 속성이신 하나님을 알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다. 세상이 달리 보인다.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삶이다. 하늘의 삶이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말라는 것이다. 구약의 계명에서 끝나지 말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사고 :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안에 선민 의식이 있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 자녀의 구별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 나타났고, 그 '의'가 이방인들과 그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의'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지만 온전히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앞에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 연약한 존재, 즉 죄인임을 알게하기 위해서이다.

율법이 그들의 '의'가 될 수 없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만들었다. 예수님만이 율법의 온전한 완성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율법의 온전한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흠이없고 온전한 분이시다. 그런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을 이웃에게 적용하라는 것이다. 땅에 적용하라는 것이다. 내 몸처럼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않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 때 내가 알고있는 '의'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진짜 알게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며 적용해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온전히 변할 수 있게 된다.

노아가 흠이없고 온전한 의인이라는 것은, 노아의 행위가 위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열매맺게 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아의 삶에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이다.

3.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1) 열정과 겸손

노아의 삶에 나타난 '온전함'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 결국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흠이없고, 의로운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겸손과 열정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열정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처참히 무너진다. 그리고 좌절한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다 결국 연약함앞에 무너진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실패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2) 베드로의 넘어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이다.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고 싶어했다. 열정이 있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앞에서 무너진다. 그리고 좌절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정가운데 나온 좌절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오히려 조반을 지어주시며 '사랑'만을 확인하신다.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다른 존재가 되어있었다. 그의 연약함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강건해져 있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넘어진 연약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더 강한 영역이 된다.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기 때문이다.

(3) Just do it.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라. 그 가운데 내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는 나의 속사람은 결국 온전하고 강건한 속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변할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짜 사랑, 요한복음 3:16절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속성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행하라. 거룩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라. 그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며,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라. 결국 승리할 것이다. 치유되고, 회복되며, 온전하게 될 것이다. 아멘